

子嗽에 關한 文獻的 考察

姜 東 煥 · 柳 同 烈*

I. 緒 論

子嗽란 妊娠咳嗽를 말하며 妊娠期間에 乾咳가 나오고 날이가도 멎지 않으며 심할때는 五心煩熱 胎動不安의 痘證이 나타나는 것으로,¹⁾ 咳嗽의 生成機轉과 證候에 對해서는 內經素門咳論篇²⁾에서 “五臟六腑 皆令人咳 非獨肺也…人與天地相參故 五臟各以治時，感於寒則受病 微則爲咳”라 하여 五臟六腑가 다 사람으로 하여금 咳嗽를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五臟이 主하는 四時에 각각受邪하여 咳嗽를 일으킬 수 있다 하였다.

陳³⁾의 《婦人良方大全》에 “夫肺內主氣 外司皮毛 皮毛不密 寒邪乘之則咳嗽 秋則肺受之 冬則腎受之 春則肝受之 夏則心受之 其嗽不已則 傳於腑 妊娠病久不已則 傷胎也”라 하여 妊娠中에 咳嗽가 오랫동안 낫지 않을 경우 胎氣를 損傷한다고 하였다.

子嗽의 원인은 크게 外感과 內傷으로 나눌 수 있는데 朱丹溪에 依하면 胎前咳嗽은 津血이 胎元을 聚養하므로 肺乏濡潤하거나 鬱火上炎을 兼한 所致라 하여,⁴⁾ 內傷을 重視하였으며, 西醫學에서는 受孕後 子宮擴大로 肺와 胃部分이 壓迫을 받아 喘咳 嘔吐같은 證狀이 發生하기 쉽다고 하였으며⁵⁾ 治法으로는 養陰潤肺清金化痰 解表止嗽하여 安胎함이 중요하다고 하였다.^{21,22,23,24,27,29,30,31)} 그러나 子嗽症이 因母而致胎病으로써 임신중에 흔히 발생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本人은 子嗽에 對하여 諸文獻을 參考調査하여 臨上活用에 도움이 되고자 子嗽의 원인과 症狀, 治法 및 治方에 對하여 考察해 보았다.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婦人科教室

II. 資料調查 및 研究方法

1. 資料調查

韓醫學 歷代文獻中 内經으로부터 現代에 이르는 30餘種을 選定하여 妊娠中咳嗽에 關한 部分을 拔萃하여 이를 研究對象으로 삼았다.

2. 研究方法

諸文獻中 各家의 妊娠咳嗽에 對한 痘因 痘機 症狀 治法·治方等을 分類調查하였으며 資料들 중에서 重複되는 內容은 重複되는대로 整理하였다.

III. 本論

1. 文獻調查

(1) 巢氏諸病源候總論⁶⁾

肺感於微寒 寒傷於肺則 咳嗽。所以 然者 肺主氣候皮毛 寒之傷人 先客皮毛 故肺受之又五臟六腑 俱受氣於肺 以四時更王 五臟六腑皆有咳嗽。各以其時 感於寒而為咳嗽也。秋則肺受之 冬則腎受之 春則肝受之 夏則心受之 其諸臟咳嗽不已 各傳於府 妊娠而病之者 久不已 傷於胎也。

(2) 女科百問⁷⁾

第六十九問 何謂子嗽

答曰 肺主氣 外合皮毛 風寒外感入射於肺故為咳也。有涎者，謂之嗽，無痰者名曰咳，夫五臟六腑 俱受氣於肺 各以其時 感於寒而為病也。秋則肺受之 冬則腎受之 春則肝受之 夏則心受之 長夏則脾受之 長夏者 夏末秋初也。諸藏不已 各傳於腑也 妊娠而嗽者 謂之子嗽 久而不已則傷胎。

天門冬湯 治 惡熱咽燥 脈數 咳嗽甚則咯血

百合散 治 妊娠咳嗽 心胸不利 煩悶不欲飲食

緩息丹 治 肺氣不調 痰壅咳嗽 上氣喘滿咳嗽唾痰沫 日夕不安止

第六十問 婕娠傷寒與常人 治法同異何如。

答曰 四時有不正之氣。如春夏亦有寒溫時。秋冬亦有暄時。是故一歲之中病無長幼率相似者。此則時行之氣。俗謂之天行。若春溫緩而清氣折之則責邪在肝。夏應暑而寒氣折之則責邪在心。秋應涼而反大熱折之則責邪在肺。冬應寒而反大溫抑之則責邪在腎。仲景云 冬溫之毒與傷寒大異。蓋傷寒者因冒寒而作也。其候發熱惡寒頭疼 腰脊痛。其脈浮緊無汗者可發汗宜服麻黃湯。脈浮緩而有汗者可解肌宜服桂枝湯。切詳麻黃桂枝皆能墮胎以此言之。則婕妊娠傷寒。常人之治法大不相侔也。嚴氏第十問 婕妊娠婦 外感風寒 淚身壯熱 眼暈頭眩者 何曰。蓋風寒客於皮膚 傷於營衛 或洗項背 或當風取涼。致令頭目昏痛 增寒發熱 甚致心胸煩悶。大抵產前二命所以不可輕易妄投湯劑感冒之初 止宜進芎蘇飲以發散表邪 其病自愈。

(3) 婦人良方大全³⁾

夫肺內主氣。外司皮毛。皮毛不密。寒邪乘之則咳嗽。秋則肺受之。冬則腎受之。春則肝受之。夏則心受之。其嗽不已。則傳於腑。妊娠病久不已則傷胎也。

(4) 女科經綸⁸⁾

○ 婕妊娠寒咳嗽爲子嗽

陳自明曰：肺內主氣，外司皮毛。皮毛不密，寒邪乘之入射于肺則咳嗽。夫五臟六腑俱受氣于肺，各以其時

感于寒而爲病：秋則肺受之 冬則腎受之 春則肝受之 夏則脾受之 長夏則脾受之。嗽不已則傳於腑。妊娠而嗽 謂之子嗽。久嗽不已則傷胎。

○ 婕妊娠咳嗽屬肺燥郁熱

朱丹溪曰：胎前咳嗽 由津血聚養胎元 肺乏濡潤 又兼郁火上炎所致。法當潤肺爲主 天冬湯主之。

○ 婕妊娠咳嗽分證用藥之法

薛立齊曰：前證若秋間 風邪傷肺 金沸草散 夏間火邪克金 人蔘平肺散；冬間 寒邪傷肺 人蔘敗毒散；春間 風邪傷肺 參蘇飲。若脾肺氣虛 六君子湯加當歸 川芎 桔梗；若血虛 四物湯加桑皮，杏仁 桔梗；腎火上炎 六味加五味；脾胃氣虛爲風寒所傷 補中湯加桑皮 杏仁，桔梗。蓋肺屬辛金 生于己土。嗽久不已 多因脾虛 不能生肺氣 膜理不密 致外邪復感；或因肺虛 不能生水 致陰火上炎。治法當壯土金 生腎水以安胎爲要。

(5) 葉天士女科⁹⁾

妊娠四五月 咳嗽五心煩熱 胎動不安 名曰子嗽 宜服宜胎飲 若因外感風寒 喘急不食 宜桔梗散 若火盛乘金 胎氣壅塞 宜兜鈴散 痰多喘滿宜百合散。

(6) 婦科玉尺¹⁰⁾

名曰子嗽。此胎氣爲病 產後自愈 不必服藥。然或因外感風寒 宜桔梗散 或因火盛乘 宜兜鈴散百合散 是又不可不治者。

(7) 醫宗金鑑¹¹⁾

妊娠咳嗽 名子嗽 陰虛痰飲感風寒。痰飲二陳加枳桔；風寒桔梗湯可安。紫蘇桔梗麻桑杏赤苓天冬合貝前。久嗽陰虛宜清潤 麥味地黃湯自痊。

(8) 胎產心法¹²⁾

妊娠咳嗽 屬肺寒 蓋肺臟內主氣 外司皮毛 皮毛不密 寒邪乘之則咳嗽 咳久亦恐墮胎 寧肺止嗽散加減用之。亦有用 蘇桔湯 散寒理肺。甚有久嗽不愈 多因脾土虛而不能生肺氣 以致腠理不密 外邪復感。或因 肺虛 不能生水 以致陰火上炎。治法 當用 補中益氣湯 以培土金 六味丸加五味以 生腎水 為善。

(9) 濟陰綱目¹³⁾

大全云。夫肺內主氣 外邪皮毛 皮毛不密 寒邪乘之 則咳嗽。秋則肺受之 冬則腎受之 春則肝受之 夏則心受之。其嗽不已則 傳於腑 妊娠嗽久不已則 傷胎也。

薛氏曰，前證若 秋間風邪傷肺 用金沸草散夏間 火邪尅金 用人參平肺散 冬間寒邪傷肺用 人蔘敗毒散 春間風邪傷肺 用參蘇飲 若肺氣虛 用六君芎歸桔梗 若血虛 四物加桑白皮杏仁桔梗 腎火上炎用六味丸加五味子煎服 脾胃氣虛 風寒所傷 用補中益氣加桑皮杏仁桔梗 蓋肺屬辛金 生於己土 咳久不愈者 多因脾土虛而 不能生肺氣 以致腠理不密 外邪復感。或 因肺氣虛 不能生水 以致陰火上炎所致 治法 當壯土金 生腎水 為善。

一 妊婦嗽則 便自出 此肺氣不足 腎氣虧損 不能司攝 用補中益氣湯以培土金。六味丸加五味以生腎水而愈。

一 妊娠咳嗽 其痰上湧 日五六碗許 諸藥不應予以爲此水汎爲痰 用六味丸料及四君子湯 各一劑稍愈數劑而安。

一 妊婦因怒咳嗽吐痰 兩脇作痛 此肝火傷肺金 以小柴胡湯加 山梔枳殼白朮 白茯苓 治之而愈 但欲作嘔 此肝侮脾也。用六君子湯加升麻柴胡而愈。

桔梗散 治 妊娠 肺壅 咳嗽 喘急不食

馬兜鈴散 治 妊娠 氣壅塞 咳嗽氣喘

百合散 治 妊娠 風壅咳嗽 痰多喘滿

紫苑湯 治 妊娠 咳嗽不止 胎動不安

(10) 沈氏女科輯要¹⁴⁾

沈堯封曰。錢彬安室人。內熱欬口瘡涎痰。夜不能臥。脈細且數。呼吸七至。邀余診視。問及經事。答言向來不準。今過期不至。余鄰近。素知伊稟怯弱。不敢用藥。就診吳門葉氏。云此百日勞不治。延本邑浦書亭治療。投逍遙散。不應更萎蕤湯。亦不應。曰病本無藥可治。但不藥必駭病者可與六味湯。聊復爾爾。因取六味丸料。二十分之一煎服。一劑欬減。二劑熱退。四劑霍然。惟覺腹中有塊。日大一日。彌月生一女。母女俱安。越十餘年。女嫁母故。後以此法治懷妊。欬痰涎。或內熱或不內熱。或脈數或脈不數。五月以內者俱效。五月以外者。有効有不効。

(箋正) 素稟本弱。而又結胎。則陰不上承。虛火燔灼。致爲欬喰痰涎。內熱諸證。六味本可以養(胎)陰。而亦能納氣清熱。投之極輕。不嫌呆笨。正是恰如地位。王孟英曰。亦有勞損似娠者。蓋凡事皆有兩面也。

(11) 赤水玄珠全集¹⁵⁾

夫肺內主氣。外主皮毛。腠理不密。寒邪乘之則咳嗽。秋則肺受之。冬則腎受之。春則肝受之。夏則心受之。其嗽不已。則傳于腑。妊娠病久不已。則傷胎也。薛氏曰。若秋間風邪傷肺。用金沸草散。夏火邪犯金。用人參平肺散。冬寒邪傷肺。用人參敗毒散。春風邪傷肺。用參蘇飲。若肺脾氣虛。用六君子丸歸桔梗。若血虛。桑皮。杏仁。桔梗。腎火上炎。用六味丸加五味子煎服。脾胃氣虛。風寒所傷。補中益氣湯加桑皮杏仁。桔梗。又治一妊娠氣喘痰甚。諸藥不効。素有帶下。始於目下有浮氣兩月。其面亦然。此氣虛而有痰飲也。用六味丸料數劑而愈。

一 妊婦嗽則小便出。此肺氣不足。腎氣虧損。不能司攝。用補中益氣湯。以培土金。六味丸加五味。以生腎氣而安。

一 妊婦咳嗽。其痰上湧。十五六碗許。諸藥不應。予以爲此水泛爲痰。用六味丸料。及四君子湯各一劑。稍愈。數貼而安。

一 妊婦因怒咳嗽吐痰。兩脇作痛。此肝火傷肺金。以小柴胡湯加山梔。枳角。白朮。茯苓治而愈。但欲作嘔。此肝侮脾也。六君子湯加柴胡。升麻而痊。

桔梗散 治 風寒咳嗽。喘急不食。馬兜鈴散 治 咳嗽氣喘

百合散 治 咳嗽。胸膈煩悶。加味參蘇飲 治 頸背拘急。鼻塞頭眩

時發寒熱咳嗽。即 參蘇飲加 五味子。杏仁 是也

(12) 婦科秘書八種¹⁶⁾

妊娠咳嗽。屬風寒。蓋肺臟內主氣。外司皮毛。皮毛不密。寒邪乘之。則咳嗽。嗽久亦恐墮胎。寧肺止嗽散加減用之。有久嗽不愈。多因脾土虛而不能生肺氣。以致腠理不密。外邪復感。或因肺虛不能生水。以致陰火上炎。治法當用補中益氣湯以培土金。六味丸加五味。以生腎水爲善。

寧肺止嗽散 治孕婦 風寒咳嗽。

(13) 女科秘訣大全¹⁷⁾

妊娠四五月咳嗽 五心煩熱，胎動不安 名曰子嗽 宜服宜胎飲，若因外感風寒，喘息不食，宜桔梗散 若火盛乘金，胎氣壅塞 宜兜鈴散，痰多喘滿 宜百合散。

(14) 六科準繩¹⁸⁾

(大全) 夫肺內主氣 外司皮毛 皮毛不密 寒邪乘之 則咳嗽 秋則肺受之 冬則腎受之 春則肝受之 夏則心受之 其嗽不已則 傳於腑 妊娠疾 久不已則 傷胎也。

欬冬花散 治 妊娠 心膈痰毒 壓滯肺氣不順 咳嗽頭疼

苦梗散 治 妊娠 肺壅咳嗽喘急

馬兜鈴散 治 妊娠 胎氣壅滯 咳嗽喘急

麻黃散 治 妊娠 外傷風冷 痰逆 咳嗽不食

百合散 治 妊娠 風壅咳嗽 痰多喘滿

紫苑湯 治 妊娠咳嗽不止 胎不安

局方華蓋散 治 妊娠咳嗽不止 穩重有効

(15) 東醫寶鑑¹⁹⁾

妊娠外感風寒 久嗽不止 謂之子嗽 宜紫苑湯，百合散馬兜鈴散 天門冬飲

紫苑湯 治 妊娠咳嗽 胎不安，百合散治子嗽

馬兜鈴散 治 子嗽氣壅喘急，天門冬飲治子嗽

一方 治子嗽 貝母去心炒黃爲末以砂糖屑拌和作丸 櫻桃大常用含化神效。

(16) 醫學入門²⁰⁾

尋常 感風咳嗽 頭痛，發熱，參蘇飲，去半夏熱服 令肌體微潤而已。風熱甚者 雙解散去 硝黃，麻黃，石羔 如傷風咳嗽 寒熱痰喘不臥以 參蘇飲 去參 加荳，朮，瓜蔞仁，杏仁，最妙

(17) 中醫學問答²¹⁾

妊娠期中，咳嗽不已 甚或五心煩熱，胎動不安者 稱爲妊娠咳嗽 古稱子嗽。孕婦如果 咳嗽時間太長，肺燥陽傷，就會形成抱兒癆，出現潮熱盜汗 痰中帶血，精神倦怠，形體消瘦等癆嗽證候，難于很快治愈。或因久嗽振動，損傷胎氣，也會引起胎動不安，甚至小產。因此，對本病必須積極治療。

妊娠咳嗽，一般多因孕婦素體陰亏，肺陰不足，懷孕以後水亏火盛，虛火上炎，灼肺傷津，肺失清潤而致。也有因平素痰濕偏盛，妊娠以後胎氣壅郁，水濕運行不利，使痰濕加重，痰飲上逆，肺失宣降引起的。此外，外感風寒，肺被邪束，氣機不暢也可引起的 妊娠咳嗽。妊娠咳嗽的治療當辨明病因分清證候，施用不同方藥。若因陰虛火動而致，干咳無痰，日久不止，甚者痰中帶血，咽干口燥，

兩頰發赤，午後發熱，頭暈目眩，舌質紅。苔薄黃而干，脈細數而滑者，治宜養陰潤肺，止嗽安胎。方用百合固金湯加減。若因痰飲上逆所致咳嗽痰多，胸悶心煩，食欲不振，舌苔膩，脈弦滑者，治宜理氣燥濕化痰止嗽，方用二陳湯。若因外感風寒所致症見鼻塞流涕，發熱惡寒，肢體疼痛，舌苔薄白，脈浮滑者，治宜疏邪解表，宣肺止嗽。可以選用杏蘇散。總之，妊娠咳嗽的治療雖與平時咳嗽的治法大致相同但滑利及降氣之藥不可過用，以防傷胎，導致小產。

(18) 症狀鑑別診斷學²²⁾

妊娠期 咳嗽不已，稱爲妊娠咳嗽，亦稱子嗽。本症若久咳不已或咳嗽劇烈，常可損傷胎氣，引起小產，或發展爲癆嗽(抱兒癆)。

風寒妊娠咳嗽，風熱妊娠咳嗽，燥熱妊娠咳嗽，陰虛妊娠咳嗽，痰濕妊娠咳嗽，肺腎兩虛妊娠咳嗽是分類的。

風寒妊娠咳嗽是疏風散寒 宣肺止咳方或 杏蘇散或 止嗽散에 加減한다。風熱咳嗽是疏風清熱，宣肺止咳方或 桑菊飲에 加減한다。燥熱妊娠咳嗽是清熱潤燥 化痰止咳方或 桑杏湯或清燥救肺湯에 加減한다。陰虛妊娠咳嗽是養陰潤肺，止咳安胎方或 百合固金湯或 補肺阿膠湯 加減한다。痰濕妊娠咳嗽是健脾化濕，理肺祛痰方或 二陳平胃湯或六君子湯 加減한다。肺腎兩虛妊娠咳嗽是益腎補肺，止咳寧嗽方或 處方은 參麥地黃丸，或補中益氣湯及都氣丸에 加減한다。

妊娠咳嗽發生的原因，一般多由於肺氣偏虛，懷孕之後，聚血養胎陰虛動火，火邪刑金，灼傷肺陰所致。或孕後陰虛火動，復感風邪肺失清肅而致。證之輕者，治療與非孕之時，無甚不同。無非慎用滑利降氣諸藥，免傷其胎。證之重者，當在固其胎元的同時，兼治其嗽。

(19) 東洋醫學叢書²³⁾

妊娠期中，久嗽不已，或伴五心煩熱者，稱爲子嗽，亦名妊娠咳嗽。

〔病因病機〕

子嗽一症，總由火熱上拔，肺失清肅所致。產生火熱的原因，有陰虛或痰壅的不同。

〔診斷要點〕

子嗽乃因妊娠陰虛肺失濡潤 或痰火上拔而作，一般無寒熱之表證。

〔辨證論治〕

1. 陰虛肺燥

(主要證候) 干咳無痰，甚或痰中帶血，口干咽燥，手足心熱，舌紅少苔 脈細滑數

(治 法) 養陰潤肺，止嗽安胎

(方 藥) 百合固金湯去當歸熟地，加桑葉，阿膠，黑芝麻，炙百部

2. 痰火犯肺

(主要證候) 咳痰不爽，痰液黃稠，面紅口干，舌紅苔黃膩 脈滑數

(治法) 清金化痰, 止嗽安胎

(方藥) 清金降火湯去石膏 加桑葉, 枇杷葉

(20) 東醫婦科診療의 實際²⁴⁾

(原因) 生冷物을 먹었거나, 辣, 薑을 多食한 까닭에 胎氣를 衝損하여 胃火가 盛해가지고 咳를 作하기도 하고 或은 陰虛火動 或은 痰飲上逆 或은 感冒風寒이 所致이다.

(脈狀) 脈이 實數한 것은 胃火가 盛한 것이요 右寸脈이 滑한 것은 痰飲上逆이오 數한 것은 火動이오 浮한 것은 感邪이다.

(治法) 胃火盛에는 清胃하고 陰虛火動에는 滋陰潤肺하며 痰飲에는 溫化順氣하고 感冒에는 疏解化痰하여야 한다.

(處方) 五虎湯, 麥味地黃湯, 枳桔二陳湯, 桔梗湯.

(21) 太韓醫學全集²⁵⁾

妊娠中에 外로 風寒에 感하여 久嗽가 止하지 않음을 이르러 子嗽라 하는 것이니 紫苑湯이나 桔梗湯을 用하고 痰飲이 肺를 射함으로 말미암은 것은 時時로 咳嗽하며 咳時에 喉間에 痰이 있어 水雞聲 같음을 發하니 加味二陳湯을 用하여 陰虛로 말미암은 것은 그 證이 時時로 咳嗽하며 痰은 없고 喉間이 燥痛하며 舌苔가 乾하여 潤함이 적고 口渴하며 潤함을 喜하니 加味六味地黃湯을 用한다.

(22) 醫心²⁶⁾

妊娠外感 : 임신기간중의 急性·熱性·전염병을 포괄적으로 통칭한다. 妊婦가 전염병에 侵犯되면 일반적으로 증상이 重하게 나타나고 사망률도 높다, 만약 이 경우에 流產이나 早產이 되면 피로와 出血이 原因이 되어 痘은 대단히 惡화할 수 있다.

(原因) 身體가 虛弱하여 皮毛가 단단치 못하여 風寒邪가 肺經으로 侵入.

(治療) 安胎為主한다.

(處方) 傷風으로 頭痛, 發熱, 咳嗽하면 參蘇飲에서 去半夏하여 热服한다.

(23) 症狀鑑別治療²⁷⁾

임신 咳嗽란 妊娠中에 咳嗽가 그치지 않는 것이며 子嗽라고도 한다. 咳嗽가 長期間 持續하는가 극심한 경우는 胎氣를 損傷하여 小產을 야기하든가 痰嗽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1) 風寒의 妊娠咳嗽

(原因) 風寒邪가 肺를 侵犯하여 肺의 宣降作用이 失調되어

(治法) 疏風散寒, 宣肺治咳로 다스린다.

(處方) 杏蘇散, 止嗽散加減

(2) 風熱의 妊娠咳嗽

(原因) 風熱邪가 肺를 侵犯하여 肺津을 損傷하여

(治法) 疏風清熱, 宣肺止嗽

(處方) 桑菊飲加減

(3) 燥熱의 妊娠咳嗽

(原因) 기후가 건조한 秋期에 發生하며, 秋燥의 邪가 肺津을 消耗하여

(治法) 清熱潤燥 化痰止咳

(處方) 桑杏湯

(4) 肺陰虛의 妊娠咳嗽

(原因) 陰虛한 體質로 본래 肺陰이 不足, 또는 熱病때문에 肺陰이 消耗되어 热痰이 停滯하고 肺의 宣降作用이 阻害되어

(治法) 養陰潤肺, 止咳安胎

(處方) 百合固金湯, 補肺阿膠湯

(5) 痰濕의 妊娠咳嗽

(原因) 脾虛로 濕과 痰이 생기고, 濕痰이 肺氣를 阻滯하여

(治法) 健脾化濕, 理肺化痰

(處方) 二陳平胃散

(6) 肺腎兩虛의 妊娠咳嗽

(原因) 虛弱한 體質로 腎虛하여 納氣不足하고, 肺虛로 因해 降氣가 되지 않아서 痰이 停滯하고 昇降이 失調

(治法) 益腎補肺 止咳寧嗽

(處方) 蓬麥地黃丸

(24) 漢方婦人科學⁴⁾

子嗽는 妊娠咳嗽의 뜻으로 甲子嗽라고도 한다. 發病原因是 內傷과 外感으로 나눌 수 있다. 外感咳嗽는 六淫의 邪가 肺孔을 塹阻해서 肺氣가 下降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咳嗽이다. 內傷咳嗽는 七情鬱結, 飲食不節, 過勞倦怠, 酒色過度 등에 의한 咳嗽를 말한다. 要컨대 咳嗽는 小病이기는 하나 특히 임신 중에는 輕視할 수 없다. 치료를 하지 않아 오래끌어 重病에 이르면 勞損, 胎傷에 이르는 일이 있으므로 早治하여 胎元의 養育을 그르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薛立齊에 依하면 壯土金, 生腎水하여 安胎함이 緊要하다 하였다.

風寒으로 因한咳嗽는 散風寒 化痰하여야 하니 止嗽散, 金沸草散을 用한다. 風熱로 因한咳嗽는 辛涼解表劑에 化痰藥을 配用하여야 하니 桑菊飲을 用한다. 暑濕으로 因한咳嗽는 清暑滲濕

을 주로 하고 化痰藥을 配用하니 六一散 清絡飲을 用한다. 燥火로 因한 咳嗽는 早期火旺의 때는 清肺降火法을 用하여야 하므로 黃連解毒湯의 類를 用하고 後期에는 清燥救肺湯의 類를 用한다. 內傷咳嗽에 있어 七情鬱結로 因한 咳嗽는 氣機를 疏通시키면서 化痰한다. 逍遙散 · 蘇子降氣湯 등을 選用한다.

過勞倦怠로 因한 咳嗽에는 補脾土 生肺金을 주로 하고 化痰藥을 配用하여야 하니 六君子湯을 用한다.

酒色過度로 因한 咳嗽에는 滋陰, 脘痰, 降火를 兼用하여야 하므로 六味地黃丸, 月華丸 등을 用한다.

(25) 診療要鑑²⁸⁾

妊娠中에 風寒에 外感되어 咳嗽가 오래 그치지 않는 것을 子嗽라고 하는데 紫菀湯 百合散을 쓴다.

(26) 臨床婦產科學²⁹⁾

1. 陰虛

평소부터 陰虛內熱에다가 妊娠으로 陰血이 下方으로 모여 胎兒를 養營하게 되므로써 虛火上炎을 초래하여 肺를 侵犯하기 때문에 咳嗽가 야기된다. 治法은 養陰潤肺, 清熱止嗽한다. 處方은 百合固金湯을 用한다.

2. 外感

임신후의 氣血不足으로 營衛가 조화되지 않으므로 인해 膜理가 固攝되지 않기 때문에 外邪를 感受하기 쉽게 되며 外邪가 肺를 침범하면 咳嗽가 야기된다. 治法은 解表止嗽하며 處方은 桔梗散, 荸麥四物湯을 用한다.

3. 痰飲

평소부터 脾胃가 虛弱한 터에 妊娠後 寒涼한 것을 過食하면 더욱 脾胃가 虛하여 運化機能이 조화를 잃고 그 결과 水飲이 정체하여 肺의 肅降機能도 失調되기 때문에 咳嗽가 일어난다. 治法은 祛痰止嗽하며 方劑는 二陳湯을 用한다.

(27) 漢方醫學用語大辭典³⁰⁾

妊娠咳嗽를 말한다. 妊娠期間에는 乾咳가 나오고, 날이가도 멎지 않으며, 심할때는 五心煩熱, 胎動不安의 病證이 나타난다. 많은 경우 平素 陰虛하여서 妊娠한 後에 血氣의 多數가 胎兒를 滋養하기 위하여 下部에 모이고, 陰精이 上承할 수 없으며 肺陰의 缺損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만일 오랫동안 咳가 治癒하지 않으면, 嘽嗽가 될 우려가 있다. 抱兒嘔라고 稱한다.

(28) 婦科病의 中醫治療³⁰⁾

孕後常有咳嗽不止，甚者五心煩熱，稱爲妊娠咳嗽，亦稱子嗽。

(病因病機) 素體陰亏，肺陰不足，孕後血養胎氣則，陰血更亏，陰虛火旺，虛火上炎，灼傷肺津，肺失清降，故致咳嗽。

如朱丹溪說：胎前咳嗽，由津血聚養胎元，肺失濡潤又兼郁火上炎所致，法當潤肺爲主。此外在妊娠期間，由於氣候寒熱不時，正氣不足，易感外邪，邪侵于肺，而致外感咳嗽，亦有脾胃虛弱，痰飲內停上逆，肺失肅降，而致痰飲咳嗽。

(主 證) 孕後干咳無痰，久咳不愈，咽干口燥，甚或痰中帶血，潮熱盜汗，手足心熱，兩顴紅赤，口干不欲飲，舌紅少苔，脈細數。

(治 法) 養陰潤肺，止嗽安胎。

(方 藥) 百合固金湯加味。

(29) 中醫婦科學³¹⁾

(概 念) 妊娠期中，久咳不已，甚至五心煩熱，胎動不安者，稱爲子嗽 或妊娠咳嗽。

(病因病機) 1. 陰虛肺燥：素體陰虛，火盛刑金，以致肺陰不足，懷孕以後，血聚于下以養胎，則血虛而陰液愈亏，陰虛火旺灼肺傷津，肺失濡潤，遂致燥咳。

2. 痰火犯肺：素體脾虛，內停痰積飲，壅久而化熱，致痰火犯肺，肺絡受損，失于肅降，而致咳嗽。

(症 狀) 妊娠期間，出現咳嗽，或干咳無痰 或咳嗽膿痰，久咳不止 可診爲子嗽。

(治 法) 陰虛肺燥症에는 養陰清肺，止嗽安胎，痰火犯肺에는 清熱化痰。

(方 藥) 陰虛肺燥症에는 百合固金湯去當歸 加阿膠炙百部 痰火犯肺證에는 小陷胸湯加貝母。

(30) 東醫婦人科學³²⁾

(原因) 生冷한 飲食物을 먹었거나 刺戟性이 있는 椒薑等을 多식한 까닭에 胎氣를 損傷하여 胃火가 盛해서 咳嗽를 發하기도 하고 或은 陰虛火動 或은 痰飲上逆 或은 感冒風寒하기 때문이다.

(症狀 및 治法)

① 感冒風寒은 時時로 咳嗽하며 惡風發熱하고 鼻塞하며 點은 콧물이 흐른다. 治法은 宣肺泄風，降肺順氣，化痰利氣한다.

② 痰飲은 時時로 咳嗽하며 咳嗽할 때 목안에서 水溪聲을 낸다. 治法은 宣肺泄風，化痰利氣한다.

③ 陰虛火動은 時時咳嗽하며 痰은 없으나 목안이 燥痛하며 舌苔가 끼고 혀에는 潤氣가 없으며 口渴症을 發한다. 治法은 肾陰을 補하고 養肺시키는 同時에 和陰歛肺해야 하니 補腎陰한다.

④ 胃火가 盛해서 咳嗽를 發할 때는 清胃를 한다.

(治方) 桔梗湯, 加味二陳湯, 加味六味地黃湯, 五虎湯

(31) 鄉藥集成方³³⁾

妊娠婦가 寒邪에 傷하여 침이 많이 나오면서 咳嗽가 나는 症狀을 治療하는 處方 : 知母, 杏仁, 天門冬, 桑白皮 各等分하여 잘게 썰어 每回三錢씩을 물 1盞에 달여 七分쯤되면 찌꺼기를 짜버리고 服用한다.

天南星丸 : 妊娠中에 痰飲이 있어 가슴과 명치 밀이 痿悶하고 惡心, 嘴逆이 나는 症狀을 치료한다.

枳殼丸 : 妊娠中에 痰이 盛하여 惡心과 嘴逆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아찔한 症狀을 치료한다.

乾薑丸 : 妊娠中에 痰飲이 가슴으로 치밀어 눈앞이 아찔하고 머리가 어지러운 症狀을 치료한다.

白朮湯 : 妊娠中의 咳嗽와 痰이 盛하여 嘴逆하는 症狀을 치료한다.

(32) 標準漢方婦人科⁵⁾

(原因) 痰飲

(症狀) 胸脇이 脹悶하고 咳嗽氣喘하며 嘔吐惡心하고 頭眩心悸하며 四肢倦怠, 精神不爽하며 痰涎이 塞甚하여 喘痰이 그치지 않고 脈弦滑, 舌苔白膩하다.

(治法) 古今驗方에는 貝母, 百合, 紫苑, 柴胡, 桔梗, 白芍, 茯苓等으로 子嗽를 治했다. 寒藥과 热藥을 쓰는 標準은 痘狀과 痘狀을 따를 것이며 黃芩, 栀子仁 같은 藥에 限정될 必要가 없다. 이 痘狀은 痰으로 생겼으므로 化痰, 降濁하는 藥이 적으면 안되며 喘嗽 嘔吐가 甚하면 降泄하는 藥을 지나치게 禁忌할 필요가 없다.

(治方) 停飲을 疏化할 때는 加減瀕痰湯을 쓰고 積痰을 消導할 때는 加味茯苓湯을 쓰고 痰飲에는 二陳湯에 枳殼桔梗을 加하고 感冒風寒에는 桔梗湯을 쓰고, 久嗽 陰虛에는 滋陰潤肺하여 清潤하여야 하므로 六味地黃湯을 쓴다.

秋節에 風邪가 肺를 損傷시켰을 때는 金沸草散을 쓰고 夏節에 風火가 肺를 耗蝕으면 人蔘平肺散, 冬節에 寒邪가 肺를 損傷시켰으면 人蔘敗毒散을 쓰고 春節에 風邪가 肺를 損傷시켰으면 蔘蘇飲을 쓴다. 氣虛하면 六君子湯에 川芎, 當歸, 桔梗을 加해쓰고 血虛하면 四物湯에 桑白皮, 杏仁, 桔梗을 加해 쓰고 腎火가 上炎하면 六味地黃湯에 五味子를 加해쓰고 氣虛하여 風寒의 損傷을 받았으면 補中益氣湯에 桑白皮 杏仁 桔梗을 加하여 쓴다. 孕婦가 咳嗽를 처음 得하면 惡風하고 寒熱을 發하여 鼻塞하여 맑은 콧물을 흘리면 發散하여야 하므로 加減蔘蘇飲을 쓰고 久嗽가 그치지 않아서 氣를

引動시켜 壇胎할 念慮가 있으면 驗方子嗽散을 쓴다.

IV. 考 察

子嗽는 妊娠咳嗽의 뜻으로 甲子嗽라고도 하며 發病原因是 內傷과 外感으로 나눌 수 있으며 咳嗽는 小病이기는 하나 오래끌어 重病에 이르면 勞損, 胎傷에 이르는 일이 있으므로 早治하여 胎元의 養育을 그르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 하였고⁴⁾ 咳嗽가 長期間 持續하든가 극심한 경우는 胎氣를 損傷하여 小產을 야기하든가 瘧嗽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²⁷⁾라고 하였듯이 해수의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子嗽의 원인을 살펴보면 內經素門 咳論篇²⁾에서 “人與天地相參 故 五臟各以治時 感於寒則受病微則爲咳”라고 하여 外感이 咳嗽의 根幹이 된다는 것을 提示하여주고 있고 巢^{6,7,33)}等은 “肺感於微寒 寒傷於肺則咳嗽”라 하여 역시 咳嗽의 原因이 外感이 것을 主張하고 있으며, 吳^{11,21,24,29,305)}等은 原因이 “痰飲이”라고 하였고 楊²¹⁾은 “平素에 痰濕이 偏盛하여 妊娠以後에 胎氣가 壊郁하여 水濕運行이 不利하여 져서 痰濕이 더욱加重하여 痰飲이 上逆하여 肺失宣降하게 되며 孕婦가 본래 陰虛한 체질인데 임신이후에 水虧火盛하고 虛火上炎하여 灼肺傷津하여 肺失清潤한所致”라 하였고 陳^{16,12,13,15)}等은 “久嗽不愈 多因脾土虛而不能生肺氣以致腠理不密 外邪復感或 因肺虛不能生水 以致陰火上炎한所致”라 하였으며 葉^{9,10,17,18)}等은 “火盛乘金, 胎氣壅塞”한所致라 하였고 李^{24,32,4)}等은 “生冷物을 먹었거나 椒, 薑等을 多食한 까닭에 胎氣를 衝損하여 胃火가 盛하여 咳嗽를 일으킨다” 하였고 孫^{15,4)}等은 “因怒하여 肝火가 肺金을 損傷하여 發生한다”고 하였으며 沈¹⁰⁾은 “胎氣爲病 產後自愈, 不必服藥”이라 하여 生理的 현상으로 보았다(Table I).

以上에서 子嗽의 원인을 區分하여 보면 外感風寒에 依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內因으로 陰虛와 痰飲에 依한 경우가 많았으며 脾土가 虛한 경우와 胃火盛한 경우와 七情鬱結한

〈Table I〉 子嗽의 原因

子嗽의 原因	引用文獻 No.
外感風寒	2, 3, 4,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2, 33
陰虛	1, 8, 9, 10, 11, 13, 14, 15, 17, 18, 21, 22, 23, 24, 25, 27, 29, 30, 31, 32
痰飲	5, 11, 13, 15, 17, 21, 23, 24, 25, 27, 29, 30, 31, 32
脾土虛	8, 12, 13, 15, 16
胃火盛	24, 32, 4
七情鬱結	4, 15
胎氣爲病	10

경우와 胎氣爲病의 順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子嗽의 증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齊⁷는 “惡熱咽燥 脈數咳嗽甚則咯血”과 “心胸不利，煩悶不欲飲食”과 “上氣喘滿” 등이 발생한다 하였고 葉^{9,13,15,17)} 等은 外感風寒으로 인한 경우는 喘急不食하며 火盛乘金으로 인한 경우는 胎氣壅塞하며 痰多한 경우는 咳嗽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하였고 武^{13,15)} 等은 “肺氣不足腎氣虧損인 경우는 咳嗽則便自出하고 水汎爲痰인 경우는 其痰上湧 日五六碗許하며 因怒시에는 咳嗽吐痰 兩脇作痛이 발생한다” 하였다. 陳¹⁷⁾은 “妊娠 四五月咳嗽 五心煩熱，胎動不安”이라고 하였으며 楊²¹⁾은 陰虛火動으로 因할 경우는 干咳無痰 日久不止하고 甚者痰中帶血 咽干口燥 兩顴發赤 午後發熱 頭暈目眩 舌質紅 苔薄黃而干，脈細數而滑한 증상과 痰飲上逆으로 因한 咳嗽痰多 胸悶心煩 食欲不振 舌苔膩 脈浮滑한 증상과 外感風寒으로 因한 鼻塞流涕 惡寒發熱，肢體疼痛 舌苔薄白 脈浮滑하다 하였고 中醫研究院^{22,27)} 等은 久咳不已할 경우와 或 咳嗽劇烈할 경우는 항상 胎氣를 損傷하여 小產을 야기하거나 或發展하여 痘嗽가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以上에서 子嗽의 症狀은 妊娠中에 오랫동안 咳嗽가 그치지 않고 五心煩熱한 것으로¹⁷⁾ 外感風寒으로 因한 症狀과 痰飲으로 因한 경우와 陰虛火動으로 因한 경우로 大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子嗽의 治法에 대하여 살펴보면 齊⁷는 妊娠傷寒과 常人의 治法에 있어 틀린점을 강조하였는데 麻黃, 桂枝는 다 능히 墓胎한다고 하여 湯劑를 가볍게 妥投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으며 또 임신중 咳久不已할 경우는 壯土金 生腎水하여 安胎함이 重要하다고 하였으며 肺燥郁熱로 因할 경우는 潤肺受主한다고 하였으며⁸⁾ 楊²¹⁾은 痰飲上逆으로 因할 경우는 마땅히 理氣燥濕化痰止嗽하며 外感風寒으로 因할 경우는 疏邪解表 宣肺止嗽하며 陰虛火動으로 因할 경우는 養陰潤肺 止嗽安胎한다 하였으며 中醫研究院²²⁾은 風熱咳嗽는 疏風清熱 宣肺止咳하며 燥熱咳嗽는 清熱潤燥 化痰止咳하며 肺腎兩虛로 因한 咳嗽는 益腎補肺 止咳寧嗽한다고 하였으며 證이 가벼운 경우는 非孕之時와 비교하여 별로 다름이 없으나 滑利降氣藥을 삼가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胎氣를 損傷한다 하였으며 證이 重한 경우는 마땅히 固其胎元하는 同時に 咳嗽를 兼하여 治療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林²³⁾은 痰火犯肺로 因할 경우는 清金化痰 止嗽安胎하며 李²⁴⁾는 飲食不節로 因한 胃火盛에는 清胃하며 宋은 七情鬱結로 因한 경우는 氣機를 疏通시키면서 化痰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子嗽의 治法을 요약하면 養陰潤肺, 解表止嗽, 理氣化痰으로 大別되어 病이 重하여 오랫동안 낫지 않을 경우는 安胎를 兼함이 중요하다고思料된다.

이에 따른 子嗽의 治方을 살펴보면, 文獻上 나타난 處方은 54個이며 이중에서 出現된 回數가 가장 많은 處方은 桔梗散 11回이며 六味地黃湯 10回, 百合散 9回이었으며 补中益氣湯과 百合固金湯이 각각 7回, 參蘇散, 六君子湯, 兜鈴散, 二陳湯이 6回, 紫苑湯, 金沸草散이 5回, 人蔘平肺散, 人蔘敗毒散이 4回, 天門冬湯, 四物湯, 杏蘇散, 止嗽散, 桑菊飲이 3회, 그외는 모두 1,2회로 나타났다(Table II).

以上의 處方을 살펴보면 疏邪解表 宣肺止咳하는 方劑와 理氣燥濕化痰止嗽方과 養陰潤肺, 止

〈Table II〉 子嗽의 治方

No.	處 方 名	引 用 文 獻 No.	횟수
1	天門冬湯	7, 8, 19	3
2	百合散	7, 9, 10, 13, 15, 17, 18, 19, 28	9
3	緩息丹	7	1
4	金沸草散	4, 5, 8, 13, 15	5
5	人蔘平肺散	5, 8, 13, 15	4
6	人蔘敗毒散	5, 8, 13, 15	4
7	參蘇子飲	5, 8, 13, 20, 26, 15	6
8	六君子湯	4, 5, 8, 13, 15, 22	6
9	四物湯	5, 8, 13	3
10	六味地黃湯	4, 5, 8, 12, 13, 14, 15, 16, 25, 32	10
11	補中益氣湯	5, 8, 12, 13, 15, 16, 22	7
12	宜胎飲	9, 17	2
13	桔梗散	5, 9, 10, 11, 13, 15, 17, 24, 25, 29, 32	11
14	兜鈴散	9, 10, 13, 17, 18, 19	6
15	二陳湯	5, 11, 21, 25, 29, 32	6
16	麥味地黃湯	11, 24	2
17	蘇君子湯	12	1
18	小柴胡湯	13, 15	2
19	紫苑湯	13, 18, 19, 25, 28	5
20	逍遙散	14, 28	2
21	萎蕤散	14	1
22	寧苦麻散	16	1
23	局方雙合散	18	1
24	百合散	18	1
25	雙解散	18	1
26	固金湯	20	1
27	蘇子降氣湯	21, 22, 23, 27, 29, 30, 31	7
28	杏仁散	21, 22, 27	3
29	桑菊感冒散	4, 22, 27	3
30	止咳散	4, 22, 27	3
31	桑菊感冒散	22, 27	2
32	清燥救肺湯	4, 22	2
33	補肺阿膠湯	22, 27	2
34	二陳平胃湯	22, 27	2
35	參麥湯	22, 27	2
36	都金丸	22	1
37	清火陳湯	23	1
38	五枳化痰丸	32, 24	2
39	枳六一絡散	24	1
40	清黃連解毒湯	4	1
41		4	1
42		4	1
43		4	1

44	蘇子降氣湯	4	1
45	月華丸	4	1
46	芩麥四物湯	29	1
47	小陷胸湯	31	1
48	天南星丸	33	1
49	枳殼丸	33	1
50	乾薑丸	33	1
51	白朮湯	33	1
52	加減滌痰湯	5	1
53	加味茯苓湯	5	1
54	驗方子嗽散	5	1

嗽安胎方과 培土生金하는 方劑로 大別된다. 主로 外感風寒에는 疏風散寒 宣肺止咳하는 方이 쓰였으며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며 陰虛火動일 경우는 養陰潤肺, 宣肺止咳方이 사용되었고 痰火가 上逆한 경우는 理氣燥濕化痰 止嗽方이 사용되었으며 脾土虛하여 肺氣를 生하지 못할 경우는 培土生金하는 方劑가 사용되었다.

V. 結論

妊娠咳嗽에 關하여 諸文獻을 考察해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妊娠咳嗽의 原因으로는 外感風寒으로 因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陰虛한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이 痰飲이며 이외에 脾土가 虛한 경우와 胃火가 盛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七情鬱結로 因한 경우가 있었다.
2. 妊娠咳嗽의 症狀은 오랫동안 咳嗽가 그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各原因에 따른 代表的 症狀은 外感風寒으로 因할 경우는 發熱惡寒 鼻塞流涕, 肢體疼痛하며 陰虛火動할 경우는 干咳無痰 日久不止 甚者痰中帶血 咽干口燥, 兩顴發赤하며 痰飲이 上逆한 경우는 咳嗽痰多 胸悶 心煩 食欲不振 等이다.
3. 妊娠咳嗽의 治法은 外感風寒에는 疏邪解表 宣肺止咳하고 陰虛火動인 경우에는 養陰潤肺 止嗽安胎하며 痰飲上逆인 경우에는 理氣燥濕 化痰止嗽한다.
4. 文獻上 나타난 處方數는 54個로 가장 많이 쓰인 處方은 桔梗散으로 11回이며 六味地黃湯 10回, 百合散 9回, 補中益氣湯 7回, 百合固金湯 7回, 參蘇飲, 六君子湯, 兜鈴散, 二陳湯이 각각 6回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參 考 文 獻

1. 蔡仁植, 權賢德, 邊元九(1983) : 漢方醫學用語大辭典, 서울, 癸丑文化社, p. 871.
2. 楊維傑編 : 黃帝內經譯解(素問), 國風出版社, pp. 294~298.
3. 陳自明 : 校注婦人良方注釋, 江西, 江西人民出版社, p. 267.
4. 宋炳基(1986) : 漢方婦人科學, 서울, 杏林出版社, pp. 344~345.
5. 李鍾華, 朴炳烈(1979) : 標準漢方婦人科, 서울, 醫藥社, pp. 265~267.
6. 巢元方 : 巢氏諸病源候總論, 上海, 昭人出版社, pp. 714~715.
7. 齊中甫 : 女科百問, 上海, 上海古籍書店印行.
8. 蕭 損(1986) : 女科經綸, 江蘇, 江蘇科學技術出版社, p. 128.
9. 葉天士(1989) : 葉天士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pp. 263~264.
10. 沈金鰲(1971) : 婦科玉尺, 臺北, 自由出版社.
11. 吳 謙(1982) :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下冊), p. 57.
12. 闔純璽(1988) : 胎產心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246~247.
13. 武之望 : 濟陰綱目, 旋風出版社, pp. 303~304.
14. 沈堯封(1988) : 沈氏女科輯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43.
15. 孫一奎(1986) : 赤水玄珠全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845~846.
16. 陳佳園(1988) : 婦科秘書八種,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 98.
17. 陳蓮舫(1989) : 女科秘訣大全, 北京, 北京日報出版社, p. 82.
18. 王肯堂(1982) : 六科準繩, 上海, 鴻寶齊書局, pp. 383~384.
19. 許 浚(1981) :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pp. 197~198.
20. 李 挺(1984) :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卷三 47卷, p. 227.
21. 楊醫亞(1985) : 中醫學問答,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220.
22. 中醫研究院編(1987) : 症狀鑑別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364~365.
23. 林金七(1990) : 東洋醫學叢書, 서울, 一中社, pp. 121~122.
24. 李泰浩(1975) : 東醫婦科診療의 實際, 서울, 杏林書院, pp. 182~183.
25. 李正來(1989) : 太韓醫學全集, 서울, 第一文化社, p. 1951.
26. 國光大學校韓醫科大學 第10期卒業委員會(1981) : 監心, pp. 544~546.
27. 李鳳教(1991) : 症狀鑑別治療, 서울, 成輔社, pp. 572~574.
28. 金定濟(1983) : 診療要鑑,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 669.
29. 姜明孜(1989) : 臨床婦產科學, 서울, 成輔社, pp. 245~247.
30. 張忠選楊鴻仁編(1988) : 婦科病的中醫治療, 甘肅科學技術出版社.
31. 叢春雨編著(1989) : 中醫婦科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p. 155~157.
32. 姜孝信(1966) : 東醫婦人科學, 서울, 醫文社, pp. 222~223.
33. 李泰浩編(1989) : 國譯鄉藥集成方, 서울, 永林社, pp. 1325~1326.